

# 의병 정동범에 관한 연구

정재극\*

## 요 약

조선후기 1728년에 의병이 일어난 배경에는 당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었다. 영조가 즉위한 이후 당파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인좌, 정희량 등이 반군을 조직하여 반역을 도모한 국가적 위란의 시기에 관군과 함께 참전한 의병 정동범과 같은 인물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A study on the JUNG, Dong-Bumb Righteous Army

Jung Jae Keak\*

### ABSTRACT

One of the background reasons of the raise of the voluntary army under the name of justice in 1728, in late Chosun period, was the discontent against the regime at that time. After the King Young-Jo ascended a throne of Chosun dynasty, some people such as Lee In-Jwa and JUNG Hee-Ryang organized rebels and raised a rebellion. At this time of a national crisis, there were people organizing the army of the justice and joining in the battles against the rebels with the royal forces of Chosun dynasty. JUNG Dong-Beum, one of the leaders of voluntary armies of justice, is a good example. For these people playing roles in the army of justice, more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tinued.

**Key words :** Righteous Army, The royal forces, Rebels, Riot, Treason

## 1. 서론

1728년(영조4년) 3월 15일 청주성 점령을 시작으로 일어난 무신난은 일부 당파에서 반군을 조직하여 영조를 퇴위시키고 집권세력들을 정계에서 축출하려고 한 전국적 규모의 정변이었다. 무신난은 크게 세 방향에서 군사적 봉기가 있었다. 호서지역에서는 이인좌, 신천영의 군대가 청주성과 주변 군현을 점령한 후 도성을 향해 안성, 죽산까지 진격했으며, 호남지역에서는 박필현이 나주 나씨들과 힘을 합쳐 전주성 점령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영남지역에서는 정희량이 중심이 되어 합천 등 4개성을 점령하였다. 무신창의록은 당시 영남지역의 반군과 의병 상황을 기록한 문서로써 무신난 진압에 참여한 영남 13개 군현의 의병 1,014명의 이름과 본관, 출생지, 가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의병의 조직상황과 활동을 규정한 절목, 의병의 조직과정과 난의 경과를 기록한 일기, 의병조직에 참여를 호소하는 통문, 격문, 새롭게 추가된 의병 31명이 기록된 별록, 168명이 기록된 적별록, 책의 편찬과 간행이 되는 과정을 알려주는 전지, 장계, 소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무신창의록은 의병 정동범이 활동하였을 때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된다.[1] 의병 정동범에 대한 기록은 청주정씨 문중족보, 경산과 세헌록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의병에 참여하게 된 동기, 반군과의 대치상황, 정동범 일생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본 논문은 무신창의록의 내용을 일부 고찰하여 정희량의 반군에 대항하여 의병에 참여하였던 정동범 가문의 세헌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역사적으로는 이인좌의 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신난이라고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조선후기 왕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민족간 국지전을 벌였다는 것은 군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정권에 대한 정통성 불신과 불만이 정권의 찬탈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반군에 가담하게 되면 가혹한 처벌과 지역인재들의 정계진출이 막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반군들은 목숨을 내놓고 가담하기 때문에 관군만으로 쉽게 난을 평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관군을 도와 반군과 맞서 무장세력이 의병이다.

의병의 본래 뜻은 외적의 침략에 대하여 민족과 국가를 보위하고자 무장투쟁한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적 실체와는 무관하게 조선시대에 민중이 국가를 위해 봉기하였으면 모두 의병으로 지칭하였기에 본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기로 하였다. 논문은 문중의 기록을 중심으로 개인이 의병에 가담하여 반군에 맞서 싸우게 되는 과정과 당시 시대적 상황을 분석하여 현대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무신창의록 고찰

무신창의록을 먼저 고찰하는 배경에는 당시 정희량의 부대를 섬멸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을 안동에서 작성된 무신창의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주목사이보혁이 주축이 된 관군과 의병이 4월 6일 정희량의 반군을 섬멸하였고 다음날 안동지역 의병들은 해산하게 된다. 당시 영남지역에서 봉기하였던 의병들의 이름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중 경산을 세거지로 하고 있던 청주정씨 문중의 일원인 정동범이 의병으로 참전하게 된 배경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 2.1. 무신난 배경과 영남지역 전황

무신난은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치적 위협을 느낀 일부 당파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정비하여 계획적인 난을 준비하게 된다. 1728년 3월14일 이인좌 등이 주축이 되어 3월15일 청주성을 점령하자 조정에서는 그제서야 난이 일어났음을 알았고 영남일부 사족도 참여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3월19일부터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을 모집하게 된다. 3월20일 정희량의 반군이 안음과 거창을 점령하여 주둔하게 된다. 3월29일 안동지역 사족인 권덕수, 김민행 등이 향교에 모여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정하였고 경상도 각 읍에 의병 궤기를 촉구하는 통문을 발송하게 된다. 30일에는 대장과 참모 등을 선출하였고 의병을 모집하는 소모도감과 군량을 마련하는 모량도감을 선출하였다. 4월1일 지휘부는 안동에 남아 의병 부대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을 작성하였고 4일에 남문 밖에 군진을 설치하고 6일 출병한다고 하였다.[2] 그러나 정희량이 만나 반군에 가담할 것을 중용받은 영남지역 유림들이 있었지만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 2.2 의병부대의 구성

의병 지휘부 계획을 살펴보면 의병 모집은 반강제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의병지원을 독려했다. 그러나 의병의 조건에서 부모가 살아 계신데 형제가 없거나 55세가 넘은 이는 대신 사람을 사서 출정시키게 하였다. 출진 중에 도망하는 자는 군율을 준용하였고 자손은 향소의 소임을 맡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였다. 관군의 편제방식대로 군대를 조직하면서 신분에 따라 부대를 구성하려고 하였다.[3] 당시의병의 구성원들은 가족, 친인척, 혹은 향리의 지인들로 구성되었다.[4] 군량모집은 자발적인 형태와 각 서원과 서당에 납부량을 할당하기도 하였다. 이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인마는 강제 징발하였다. 무기는 각자 지참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군복과 식기 등도 스스로 마련하였다. 안동지역의 의병 준비과정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관청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향촌사회에서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부족한 무기는 관의 협조를 받았고 향촌사회의 관행과 관권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5] 의병은 무기를 직접 휴대하고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농기구 또는 통일되지 않은 무기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훈련도 미흡할 것으로 추측된다.

## 2.3 의병부대의 해체

군대의 형태를 갖춘 안동지역 의병은 출정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4월 3일 성주목사 이보혁이 합천의 부대를 섬멸하고, 거창의 반군을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반군이 완전 격멸되었다는 통보가 없어 계속해서 출정준비를 하다가 4월6일 반군이 진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에 의병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4월 7일 의병과 관련된 각종 기물과 문서를 향교에 보관 다음 자진 해산하였다.[6]

결국 뚜렷한 전과를 남기지 못하고 해산하였지만 경상도지역 의병을 조직하여 반군에 대항하였다는 충

심은 무신장의록에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3. 의병 정동범의 생애 고찰

### 3.1 생애

조선개국공신이었던 정충의 고손인 정응상은 한훤당 김굉필의 사위였으며, 정응상의 사후에 그의 처자들은 외가가 있는 경상도 현풍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정응상의 차남인 정사경의 손자인 정유약이 병자호란 직후인 1639년 경산으로 이주하게 된다. 정동범은 청주정씨 21세손이며 정유약의 고손으로 경산시 노변동에서 태어났다. 타고난 성품이 순수하고 어질며 기질과 도량이 영특하다고 전하고 있다. 청주정씨 시조는 정극경이며 고려 명종때 중랑장을 지냈으며 청주 토성으로 고려후기 사족화의 과정을 거쳐 여말선초에 토성의 분화과정에서 개국지지 세력인 경과와 향파로 분파되어 이어져 오고 있다. 정동범은 개국지지 세력인 개령현감 정응상의 후손이 된다. 정동범은 무신난에 의병으로 참여하여 공을 세웠지만 이를 마다하고 사림에 묻혀 부모님 공양과 효도로 평생을 보냈다. 사후 1892년 조정에서는 의병에 참여한 공과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기리는 정충문을 내렸고, 부호군으로 추증되었다.[7]

### 3.2 의병 출정기록

정동범이 19세인 1728년 무신년에 역적 이인좌, 정희량, 박필현 등 내외 관리가 합모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사직이 위태로웠다. 밤에 책을 읽다가 삼도의 기병소식을 듣고 책을 덮고 탄식하였다. 글을 읽던 선비로서 임금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를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대장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많은 고민 끝에 부모님께 의병에 참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동범의 부친은 아들의 용맹과 굳셈, 그 지절의 뛰어남을 알고 허락하시며 ‘전장에서 용맹 없으면 효도가 아니라’ 하셨다. 동범은 밤에 창의문 한 편을 짓고 검을 잡고 출전에 임할 때 어머니가 ‘충효를 둘 다 온전히 할 수 없다. 부모 염려하지 말라’ 당부하였다. 다음날 성주목사 이보혁을 만나니 옛날에 서로 아

는 사람을 만난 듯이 하며 ‘하늘이 그대와 나에게 임금급 근심을 덜게 하는 것이다’ 하고, 한 척의 검을 주기에 동범은 문밖에 나와 돌을 치니 검 끝에서 무지개가 생기자 성주목사가 놀라며 기이하게 여겼다. 정동범이 소매 속에서 창의를문을 내어 보이니 성주목사는 창의를문을 여러 읍에 알렸다. 남쪽고을 인사들이 정동범이 창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이 떨치고 일어났는데 집집마다의 의리가 고을마다의 의병이 되었다. 하룻밤에 성주목사와 정동범이 정예기병 수백을 거느리고 합천, 거창으로 달려가 적과 만나 적의 기세를 보고 적들은 내 눈안에 있다고 하고 먼동이 틀 무렵 손살같이 적진에 들어가 적장 수십 인을 베고 휘하의 적진을 무너뜨렸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니 성주목사가 제일이라고 하였다. 정동범이 눈물을 흘리며 사양하기를 사군자가 밝은 세상 만나 성인의 가르침으로 알려짐은 마땅하나 군공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시고 산림에 은거하였다.[8]

### 3.3 의병 창의문

없드려 생각하건데 형이 없으면 아우가 이어가는 것은 천지의 떳떳한 도리요, 죽음으로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신하의 절개이다. 이에 학문이 닦이고 무가 쓰러져 나라가 태평한 날에 어찌 임금을 업신여기고 권세를 휘둘러 함부로 날뛰는 무리가 역모할 수 있겠는가. 하나같이 나라 안은 이것이 근심이다. 삼성이 함락되었으니 아! 창의하는 장부가 없고 모든 관리가 좌시하여 듣고만 있다면 응당 역모를 하는 간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로(추나라, 노나라 사람)에 의와 풍속이 이미 멀어질 것이며 사백년 당우의 도야한 지화가 어찌 남아 있겠는가. 천문이 장차 어두워져 인륜이 오랑캐의 법도를 따르고 난신적자에 비록 이 인좌, 정희량과 같은 나쁜 무리가 있으나 충의의 혼백은 어찌 백이 왕축의 어둠을 본받지 않겠는가.[9]

#### 3.3.1 정동범과 창의한 의병

정동범과 의병을 같이 한 지역 인원은 집안 당숙인 정후태와 더불어 장경태, 장해봉, 서도가, 김석주, 최재일, 마석천, 김진우, 이사순, 한명길, 배재망, 오상목, 정기양, 하도일, 여대현, 임재향, 정여권, 노필광 등의 제현들이다.[10]

### 3.4 성주목사 이보혁과의 관계

무신난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성주목사로 보임된 이보혁은 문신이였다. 이전의 관직을 보더라도 주로 문관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전투경험이 없어반군과의 전투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였을 것이다. 이때 정동범이 찾아와 의병을 자칭하고 반군과 싸우겠다고 창의문을 가지고 찾아오자 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반갑게 맞아 주었다고 한다. 정희량의 반군을 격멸하고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는 날 군졸이 적의 집에서 도록(기록이나 장부)을 발견했는데 경향 역적의 이름이 간간히 나타났다. 정동범은 이보혁에게 말하기를 ‘두목을 모두 죽이면 그 나머지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도록을 불사르게 하기를 권하였다. 훗날 사람들이 정동범이 적발한 도록에 의심함이 있어 간혹 해치고자 하는 자가 있었는데, 동범은 처연히 편안해 하시며 벼슬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뜻을 삼았다. 성주목사 이보혁은 몸소 정동범의 집을 방문하여 천금을 내어 정동범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며 정자를 지었는데 명칭을 후연정이라고 하였다. 정동범이 24세때 이보혁이 술을 신고 찾아와 임금이 친히 임한 별시에 응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동범은 ‘사군자가 마음을 세워 이미 정하였는데 어찌 명리를 위하여 골몰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원하옵건데 이보혁께서는 사직의 신하가 되었으니 소생은 소허(소보와 허유)의 유에 만족합니다’라고 하였다.[11]

문헌를 고찰하여 보면 의병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으나 상을 받지 아니하였고 벼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나아가지 않았다. 평범하게 부모님을 봉양하고 범부로 만족하고 살았음을 알 수 있었다. 성주목사 이보혁은 반군을 진압한 공을 인정받아 분무공신 3등으로 인평군에 봉해졌으며 후에 한성부 판윤과 공조판서로 승승장구 하였다.

## 4. 관군과 반군 전투상황

관군과 반군의 전투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관군은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반군에게는 기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록은 없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종의 출현으로 무력화 되었던 기병이 병자호란을 거

치면서 속도전에는 유용하다는 점 때문에 기병 골격은 유지되고 있었다.

당시 정희량의 반군이 위치하고 있던 거창과 합천은 관군과 약 60km 거리에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 성주목사와 정예기병 수백을 거느리고 합천, 거창으로 신속히 기동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병의 역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군과 대치하고 있던 관군들이 여명을 기해 기병을 앞세운 돌과를 감행하여 적진을 유린하고 지도부를 와해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습전과 더불어 기병의 돌과력을 보여주었고 있다. 특별한 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반군의 경우 기병들에게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며 순식간에 전열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하여 추격과 전과확대를 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조직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반군의 경우 흩어지면 재집결이 어려운 점도 반군이 순식간에 와해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무신장의록 기록에 의하면 관군에게 패한 이후 두 번 다시 대항하지 못하고 진압되어 추가적인 의병 투입이 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유추해볼 때 기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조선후기 관군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기병전술과 마상무예, 병학통, 무예도보통지 등 관 위주의 전술전기를 연마시킨 기록으로 보아 관군에게는 기병이 건재하고 있었다.[12]

병력규모면에서 관군과 의병은 수백 명으로 기록하고 있고, 반군 지도부 수십 명을 처단한 것으로 보아 반군병력은 천명 미만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결국 지형과 지물, 공세적 전투의 대등한 병력, 기병의 보유, 여명을 틈탄 기습적인 공격이 반군을 격멸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결 론

의병 정동범은 역사적인 사건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고 사후 정충문과 추증관직을 받아 현존하는 시설이 남아 있으며 문중 문헌으로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문헌은 무신장의록이 있으며 당시 일정별로 소상하게 기록된 내용은 의병과 관련하여 연구할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무신장의록은 무신난이 일어난 지 60년이나 지난 후에 편찬되고 간행

은 87년 후에 이루지다 보니 당시 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본 논문에서 무신장의록 내용 중 일부인 의병의 봉기 실태와 성주목사 이보혁이 합천, 거창에서 반군을 격멸한 시기 등은 비교적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 점, 당시 안동을 중심으로 한 사립중 청주정씨가 6명(정의상, 정태복, 정도홍, 정의장, 정태휴, 정의집)이 의병으로 가담한 것으로 기록[13]되어 있는 점 등은 정동범 가문에서 의병참여가 활발하였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성주목사 이보혁은 의병 정동범에게 무기를 주면서 반군 진압작전에 투입하게 하였고, 정동범은 적진에서 적장 수십 인을 베고 적진을 와해시키는 공을 세운다. 문신인 성주목사가 전투경험은 없지만 지역을 잘 아는 의병을 활용하여 적시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줄 아는 리더십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전투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관군이 반군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빠른 기동을 할 수 있는 기병과 더불어 기습을 빼놓을 수 없다. 훈련되지 않은 반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지도부를 조기에 와해시키고 전과확대를 위해 추격을 실시하여 한 번의 전투로 반군이 더 이상 전열을 갖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정동범이 자발적으로 의병에 참여하게 된 시대적 상황은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전역을 미루거나 다시 자발적으로 재 입대 하겠다고 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뇌와 같은 것이며 국가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공에 대한 포상과 벼슬에 대한 유혹도 마다한 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 봉양으로 평생을 보낸 사실은 현재 우리 국민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평범한 범부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의병은 현재의 민방위대처럼 사전에 조직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역내 종족을 기반으로 단결력과 조직력이 우수하였고 문중을 중심으로 형성된 혈연관계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발휘의 근간이 되었다.

현대전에서 의병의 역할은 첫째 북한군의 비대칭전력, 즉 대남전략전술인 제4세대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 미래전쟁은 작전지역과 작전소요가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에 민·관·군이 상호의존성이 높고 초동단계에서 작전이 종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사전 구축해 놓아야 한다.[14] 평시 민방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으로 전시 지역

내에서 의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예화로 양성되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고속기동전에 대비하여 교량과 견부지역에 대  
한 신속한 지원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래전에서  
는 북한군이 입체 고속기동으로 남한 후방 깊숙이 진  
출하여 심리적 마비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15]  
현재 감편인원으로 구성된 후방부대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예비전력의 신속한 동원이 계획되어 있지만 생  
업에 종사 또는 외부 장거리 출타 등으로 동원이 제  
한될 시 지역내 군부대 지원인력으로 활용하여 차량  
과 군수물자 보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  
면 예비전력이 완편 될 때까지 현역을 도와 임무를  
수행한다면 효과적인 차단작전을 실시하여 입체 고속  
기동전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시 주도권 장악을 위해 각종 분란전과 더불어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국민 상호간 갈등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인력이 투입  
되겠지만 역부족할 경우 지역 내 질서유지 요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는 첨단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 주  
민들이 갈등해소와 질서유지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  
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조선후기 개인의 의병 참여에 대해 문중  
의 기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당시 의병 대부분이  
글을 모르거나 이름이 없어 기록조차 할 수 없는 경  
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나마 글을 배우  
고 지역 향족으로 남아 있는 문중에서 문서로 기록되  
어 남기고 있는 대동보와 문헌집 등은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앞으로 국가 위난시 거병한 의병 정신이  
미래전에서도 계승될 수 있도록 의병 연구는 지속되  
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고수연, “무신창의록을 통해 본 18.19세기 영남  
남인의 정치동향”, 역사와 담론 pp. 312-313.  
2013.  
[2] 이육, “조선영조대 무신란과 안동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 pp149-150, 2011,  
[3] 戊申倡義錄, 권乾,軍門日記, 주로 평민을 대상으로

의병을 모집했으며, 신분에 따라 부대편제를 달  
리하였다.

[4] 신윤호, “임진왜란과 고성의회병의 활동 양상” 군  
사, p422, 2015.  
[5] 김강식, “임진왜란시기 경상우도의 의병조직의 변  
화와 의미”, 지역과 역사, pp167-168, 2001.  
[6] 이육, “조선영조대 무신란과 안동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 p.150, 2011,  
[7] 청주정씨대동보, 권2, pp991-993., 2002.  
[8] 세헌록, 노변문중, pp193-194, 2002.  
[9] 세헌록, 노변문중, pp194-195, 2002.  
[10] 세헌록, 노변문중, p285, 2002.  
[11] 세헌록, 노변문중, pp283-285, 2002.  
[12] 최형국, “조선후기 기병 마상무예의 전술적 특  
징”,군사, pp35-37, 2009.  
[13] 세헌록, 노변문중, p282, 2002.  
[13] 고수연, “무신창의록을 통해 본 18.19세기 영남  
남인의 정치동향”, 역사와 담론, p338, 2013.재인  
용  
[14] 하헌식,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연구”, 한국외국  
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60-61, 2015.  
[15] 최완규, “마비이론의 현대적 고찰과 미래전 적용  
성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45-147, 2010.

### [저자소개]



정 재 극 (Jae-Keak Jung)

1990년 학사  
1996년 석사  
2013년 박사  
2011년~현재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입학홍보처장

email : kuk2934@naver.com